

“한국가정서 생활·문화 체험하세요”

‘코리아 B&B운동’ 큰 관심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서 캠페인 숙박환경 등 심사 거쳐 인증서



◇코리아 B&B운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제메너와 전통예절 등의 교육을 거쳐야 한다. 사진은 다도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한국 가정에서 묵으며 한국문화를 체험해 보세요.”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의 숙박문제 해결에 아줌마들이 나섰다. 아줌마 단체인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대표 김용숙, 이하 ‘아나기’

이 2000년 11월부터 준비해온 ‘코리아 B&B(Bed and Breakfast) 운동’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B&B 운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잠자리(Bed)와 아침식사(Breakfast)를 제공하며 그 나라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숙박이다. 특히 아나기 회원들은 단순한 숙식제공을 넘어 우리나라 가정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한국인의 정과 친절함을 느끼게 해주자는 취지로 B&B 운동을 시작했다.

2300여 아나기 회원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지만 신청만 한다고 모두가 숙박시설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줌마 심사단이 가정을 방문해 숙박환경을 조사하는 1차 심사가 끝나면 국제메너와 손님대접, 우리 상차림과 예절, 다도 등의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800여 가구가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이 중 100여 가구는 이미 외국인 손님을 맞았다. 이들은 3~4일간 외국인 손님과 같이 생활하며 김치 담그기, 한복 입어보기 등 한

“가정법회 등 통해 불교알리는 기회로”

‘아나기’ 김용숙 대표

“불자 가정에서 외국인 홀 스테이를 한다던 가정법회나 사경 등을 통해 불교를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 개막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아나기 대표 김용숙(50)씨는 MBC 5기 탤런트로 시작해 스텐디드, 사입가 등 다양한 경력을 쌓은 불심 깊은 아줌마다. ‘아줌마들도 사회의 흐름을 알고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뜻에서 99년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이라는 단체를 만든 그는 불친절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민 권리 찾기 운동을 벌여왔다. “홍스태이는 1일 3만 5천원 정도로, 호텔 등 전문 숙박기관에서는 느끼기 힘든 우리의 생활 문화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불자 가정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했다. (www.koreabnb.info 02-354-1909)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관음종 총무원장상

그림자 ㉔



산소호흡기 고통 정근으로 달래 금강경 사구계 내 처지 대변한 듯

나는 11대 종손인 아버지의 4남 4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3대 독자이신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새벽기도 공덕으로 할머니 연세 50이 가까워져야 태어나

고려던 1996년 5월 21일 새벽,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병에 걸려 중환자실에 누워 하루에도 몇 번씩 영안실로 내려가는 유체를 본다. 생과 사의 간이역, 이곳에서 좋아지는 것은 신기하게도 귀병이다. 보호자와 의료진의 발자국 소리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니 말이다.

나는 코에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입으로는 물 한 모금도 넘길 기력이 없어 하루에 한 번씩 코에 관을 넣어 연명하게 되었다. 이런 악조건에서 보름이 지나니 정신이 포기 쪽으로 바뀌었다. 건강할 때는 참회기도 받아심경이 끝나야 하루를 잡았는데... 다행히 숨이 있어서일까 아파오는 고통보다 더 크게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서 이겨 나갔다. 이 무렵 월속속 한줄기 빛은 뜻밖에 금강경 사구계였다. 일체현상계의 모든 생명법은 꿈이며 환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고 아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불지이다.

지금 내 처지를 이렇게도 절실하게 말씀해 놓으셨단 말인가. 막상 저승을 받아들이고 이승을 관조하니 제일 먼저 열심히 공부하지 못함이 후회스러웠다. 불법이 좋아 야간불교대학 2년을 다니며 포교사고시 1회 합격하고도 전법을 실행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중환자실에서

이승을 떠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마치 현실인 줄 알았다. 그 꿈은 너무 생생하고 지금도 그 감촉이 남아있다.

이승의 다리를 건너니 이승에 두고 온 사람은 아지랑이처럼 작은 물방울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오른쪽으로는 동풍이 보였다. 동시에 문이 내려지고 무엇인가 밝은 것 같은 느낌이 눈을 뜨니 동굴 속의 새벽이었다. 이후 저승사자의 안내로 흑암바다를 날아서 가까이 가니 보석으로 지어진 극락전이 공중에 떠 있는데 난간이 없는 곳에 나를 내려놓는다. 금으로 된 마루는 뜻밖에 따스한 인방의 온도처럼 느껴지고 소나기 온 뒤처럼 청정한 공기가 느껴졌다. 연분홍기둥과 섯노란 난간에서 빛이 멀리서서 불덩어리로 보였지만 막상 연분홍 기둥을 두 팔로 안아보니 따스했다. 아름다운 색채 맑은 공기 넓은 공간 구석에 누워 쉬어 볼 생각으로 기둥을 잡으려는데 누군가 “너의 자리는 여기에 없다”고 발로 허리를 차버린다.

그리고 눈을 뜨니 몸의 고통이 다시 느껴지는 중환자실이다. 그러나 신비스럽게도 산소호흡기 없어도 코로 청정한 공기가 들어오고 체온계는 40도를 훨씬 넘나드는데도 내 몸은 얼음같이 누워 있는 듯 너무 추웠는데 따스한 저승에서의 감촉이 현실에서도 전해졌다.

이후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 빈 공간에서 서서히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며칠 후 병실로 올라왔다. (계속) 장원각성(광주시 서구 농성2동)



목탁·독경소리 울리는

공예품 ‘생명의 소리’ 출시

목탁 몸체의 ‘울’ 자에 목탁채를 대기만 하면 목경이 울려 퍼지는 모형 목탁 공예품이 나왔다. ‘생명의 소리’ (사진)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이 모형 목탁은 소리 감지 멜로디 재생 장치가 부착돼 1분 동안 특경이 이어지며, ‘소원 성취’ ‘관음정근’ ‘참회진언’ 등 세 종류가 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87년 예불 천수경 녹음테이프를 낸 적 있는 화암 스님(양평 사나사 주지). 화암 스님은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산사의 법당에서 하는 듯한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



다”며 “외국인 선물용으로도 만성맞춤이다”고 말했다. 경희대 관광대학원 안경모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고 (주)피앤케이테크에서 제작을 맡았다. 5.5 cm 크기로 연속 10시간(3천~5천 번) 사용 가능. (033)732-5600. 권형진 기자

부처님 가르침 만화로 만나요

‘부처와 돼지’ ‘작은 생쥐와 큰스님’ 출간

아이와 함께 만화를 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부처와 돼지>, <작은 생쥐와 큰스님>이 나왔다.

<부처와 돼지> (고이즈미 요시로 지음, 김지홍 옮김, 들녘)는 네 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만화책으로 <우리는 모두 돼지>, <있는 그대로 좋아>, <아무 일도 아니야>의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하필 돼지가 주인공일까? 일본어로 부처는 ‘붓타’고 돼지는 ‘부타’다. 또 하나, 탐욕의 대명사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돼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와 감정을 조절하는 법, 부나 명예의 의미 등에 대한 성찰 등 초

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귀여운 돼지들의 이야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각 권 8천원.

<작은 생쥐와 큰스님> (다인노 바르바라 글, 마리 말라르 그림, 전채민 옮김, 풀빛)은 큰스님과 행복하게 지내던 작은 생쥐가 고양이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큰 스님을 좇아 개, 호랑이로 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모습은 호랑이가 되었지만 고양이만 마주하면 도망가는 생쥐에게 큰스님은,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임을 일깨워 준다.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볼 만한 그림책이다. 7천 5백원.

여성 단신

50~60세 여성노인 취업교육

부천시니어클럽은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만50세에서 67세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아이도우미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21일까지이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한 통과 사진 3매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 332 684-4108

부부대화법 4회 교육

수원 여성의 전화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4일부터 7월 4일까지 4회에 걸쳐 부부간 관계 개선과 갈등관리를 위한 부부대화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바람직한 부부간의 대화법, 갈등유형 및 해결방법, 갈등관리 및 대화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7월, 10월, 11월에도 열린다. 교육은 오후 2~5시까지 수원여성의 전화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3만원. (031)232-7780

아미타불을 친견, 직접 극락을 다녀오다!

중국 관정 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극락은 있다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판 | 장가 8,000원

실화 체험기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본문 중에서-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천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 하품 · 중품 · 상품연화

아미타불의 부촉 / 인간세대로 돌아오다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현 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좋은 佛書 좋은 佛子를 만드는-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59 경림리성 405호 ☎ 02)722-0292~3

부다의마을



설산 스님의 그림 에세이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알몸으로 와서 일구고 살다
수의 한 벌 얻어 입고
어느 곳으로 가느냐?

신국판 / 208쪽 / 값 9,000원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 三 養

전화 02)762-5166~7 · 팩스 02)762-3973